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년월일 : 2004. 6. 18.
제 출 자 : 류병하의원외14인

1. 주문

천문학적 이전 비용이 소요되는 수도 이전정책이 국민적 합의 없이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무리한 강행에 우려감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는 수도이전 추진반대를 결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우리의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국제적인 대도시임에도 최근 현 정부가 수도이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
- 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도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나 강원도 및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 다.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수도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함.

수도이전추진반대에관한결의(안)

우리의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국제적인 대도시이다.

최근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은 국론의 분열적 양상을 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됨에 우려감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다.

첫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도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강원도 및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는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수도 후보지의 해당 지자체와 충청권 주민들마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국민투표를 포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효과를 엄밀히 연구 분석치 않고 추진하는 수도이전은 국가경제의 혼란을 야기한다.

수도이전은 약 1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대역사로서 막대한 사업비용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피폐시켜 국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주한미군 감축 및 한강이남 재배치 등 급변하는 국가안보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에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로 이어지고, 또한 수도권 공동화 현상 등으로 국제도시간 경쟁시대에 서울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과 장래가 걸린 사안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와 검증을 거쳐 수도이전 정책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일본 등 외국의 수도이전 정책의 실패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 백년대계인 수도이전을 합당한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41만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는 영등포구의회는 국가경쟁력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이전을 결사반대한다.

2004.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 일동